

# Market Intelligence

- 1. 세계 경제 및 금융 동향 ..... 1
  
- 2. 주간 이슈 ..... 3
  - 우크라이나 사태의 전개 전망과 경제적 영향

[참고자료] 주요 경제지표

## 주요 동향

- ◇ 美 FOMC 3월 의사록, 저금리 유지 필요. 선제적 안내 실업률 기준(threshold)을 폐지하고 “질적 선제적 안내”로 변경
  - 실업률 기준(6.5%)를 폐지하고, 완전고용과 인플레이션을 +2% 달성을 위해 기준금리 인상은 노동시장, 기대 인플레이션을, 금융시장 상황 등 광범위한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
- ◇ IMF, 세계경제 금년 성장률 전망 3.7% → 3.6%로 미세 조정
  - 미국 경제회복세가 강하여 브라질과 러시아 등의 신흥국 회복세 둔화를 상쇄하고 세계경제 회복을 이끌 전망
- ◇ 中 성장둔화 우려 등으로 美, 日 등 주요국 증시 하락
  - (원인) 3월 수출, 전월(△18.1%)에 이어 2개월 연속 감소, 예상(+4.8%) 밖으로 전년동월 대비 6.6% 감소한 1,701.1억달러를 기록하며 중국경제 성장둔화에 대한 우려 확산
  - 미국 나스닥지수는 전일대비 3.1% 급락, 2011년 11월 9일 이래 최대 하락. 일본 니케이지도 2.38% 하락. 또한, 독일 DAX △0.55%, 프랑스 CAC 40 △0.66% 등 유럽 증시도 하락

## 주요 동향

- ◇ 러, 우크라이나 앞 천연가스 단가 인상 및 공급중단 가능성 시사
  - (Gazprom) 4월부터 우크라이나 앞 천연가스 공급가 80% 인상
    - 기존 100CM 당 268.5달러 → 485.0달러
  - (푸틴 대통령) 미지급금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즉각적 조치가 없을시, 우크라이나 앞 천연가스 공급 중단 가능
  - 유럽의 전체 천연가스 사용량의 15%가 우크라이나를 통해 수입됨을 감안시 유럽에까지 큰 영향을 미칠 전망
  
- ◇ 일본-호주 양국간 경제동반자협정(EPA)에 대한 대략적 합의 도출
  - 7년간의 논의 끝에 관세를 철폐하거나 낮추기로 대략적인 합의 도출. 금년 여름 협정 서명 및 이르면 내년 발효 계획
  
- ◇ 러시아, 1분기 순자본유출 506억달러, 2008년 이후 최대치
  - 전분기 178억달러 대비 큰 폭 증가. 미국, EU 등 서방국가들의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조치 등에 기인

- ◆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과 관련, 미국·EU와 러시아간 갈등의 고조로 서방은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를 통한 국제사회에서 러시아의 고립 전략을 추진하고 있음. 이로 인한 경제적 영향을 살펴보고자 함.

## 1. 우크라이나 사태 동향

- 우크라이나 반정부시위로 친EU 과도정부 구성 및 이를 계기로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
  - 우크라이나 의회는 2월 말 친러시아로 회귀에 반대하는 시민 요구를 반영, 야누코비치 대통령을 축출하고 과도정부를 구성
    - 야누코비치가 푸틴에 크림반도에 대한 군대 파견 요청
  - 우크라이나 크림자치공화국은 주민투표를 통해 러시아 귀속을 결정. 러시아는 신속히 크림반도 합병
-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이 미국·EU와 러시아의 갈등 초래

### EU의 동진정책과 러시아의 EEU 충돌

구분	EU의 동진정책	러시아의 EEU
목적	EU의 EP(Eastern Partnership)* 로 구소련 6개국에 자유무역, 경제협력 등 EU 확대정책 추진 * 조지아, 몰도바, 아제르바이잔, 벨로루시, 아르메니아, 우크라이나 6개국	EEU(Eurasian Economic Union)*를 통해 상품, 서비스, 자본, 노동의 이동 자유화 등 경제연합 추진 * 벨로루시, 카자흐스탄, 아르메니아, 키르기즈, 타지키스탄, 우크라이나
경과	- 2009년부터 EP 구상 아래 우크라이나 등 6개국과 협상 - 2013년 8월 우크라이나의 EU EP 가입계획 발표	- 2010년 1월 벨로루시, 카자흐스탄과 체결한 관세동맹을 확대·발전시켜 2015년 1월 EEU 출범 목표 - 2013년 8월 우크라이나산 철강 등 수입금지, 12월 150억 달러 지원 약속과 천연가스 공급가격 인하 계획

## 2. 서방의 러시아 경제제재 현황

□ (경제 제재) 경제적 이해관계로 입국제한과 자산동결 등 소극적 양상

○ (미국) 러시아 관료 등에 대해 미국 입국금지와 자산동결

- 푸틴과 측근의 사금고로 알려진 로시야은행을 제재 대상에 포함. 실제로 JP모간은 4월 초 카자흐스탄 주재 러시아 대사관에서 보험 회사 소가즈(로시야은행 계열)로의 송금을 차단

○ (EU) 러시아 관료의 EU 입국금지와 자산동결

- 러시아와 교역이 많은 독일, 영국, 프랑스 등이 제재에 신중

○ (G7) 3월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지역에 대한 군사행동 등을 할 경우 에너지와 금융 등 핵심부분에 대한 추가 제재 경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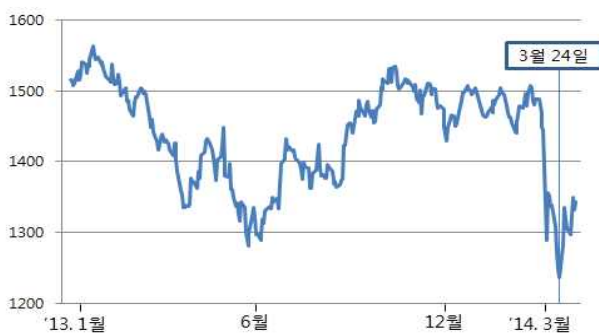
□ (러시아의 영향) 경제제재로 자본유출 등 러시아 경제성장 하락 가능성

○ 러시아 주가지수와 루블화 가치가 2014년 중 최저치로 하락한 반면, 국채금리는 최고치로 상승

○ 러시아는 2014년 1~3월 506억 달러 규모의 자금이 유출된 것으로 추산

○ IMF는 금년 러시아 경제성장률 전망을 2.0%에서 1.3%로 하향. 세계은행은 추가 제재 조치시 성장률이 -1.5~-2.0%까지 하락 경고

러시아 주가지수 추이



주: 모스크바 종합지수(MICEX)

자료: Bloomberg.

러시아 환율 및 국채금리 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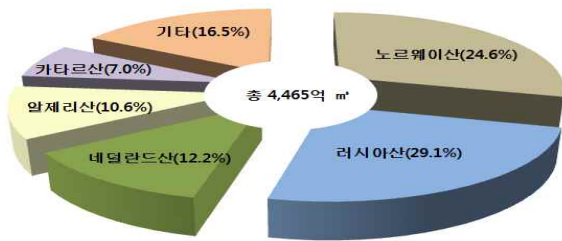


자료: Bloomberg.

### 3. 향후 전망과 경제적 영향

- (우크라이나 사태) 우크라이나의 친EU 과도정부 수립과 크림반도의 러시아 귀속 등의 현상황으로 봉합될 전망
  - 우크라이나 5월 대선에서 친EU 대통령 당선으로 친EU 체제구축 가능성
- (추가제재) 전면적인 교역중단 등 강력한 추가제재 가능성 희박
  - 유럽은 천연가스 수입의 29.1%를 러시아에 의존
  - 러시아 진출 엑손모빌, BP, 로열더치셸, 토탈 등 서방 에너지 기업의 반발 예상
  - 러시아 재벌과 고위관료 자금의 허브인 영국 금융계도 자금이탈 우려
  - 미국·EU와 러시아의 갈등이 확대될 경우 세계경제 침체 우려

유럽의 천연가스 수입국 비중



자료: BP

유럽 주요국 러시아 천연가스 의존율(%)

국 가 명	'12년
핀란드	100
체코	78
폴란드	48
독일	35
이탈리아	27
프랑스	13

자료: EU

- (EU) 에너지 수입선 다변화와 셰일가스 개발 등 가속화 전망
  - 미국의 유럽에 대한 셰일가스 수출 추진의 탄력 예상
  - 환경파괴와 수질오염 등이 제기되었던 셰일가스 개발 추진 고려
  - 신재생에너지 등 대체 에너지 개발의 가속화 가능성
- (러시아) 우크라이나에 대한 에너지 할인가격 미적용 및 아시아 지역으로의 에너지 수출시장 다변화 추진

확 인	실 장	김주영
작 성 자	선임조사역	김찬수

1 외환시장

구 분	'13년말	'14. 4. 4	'14. 4. 11	전주비
₩/US\$	1,055.4	1,053.5	1,035.0	△18.5
₩/100¥	1,002.3	1,014.4	1,018.1	3.7
¥/US\$	105.30	103.86	101.66	△2.20
US\$/€	1.3736	1.3704	1.3893	0.0189

2 채권시장

구 분	'13년말	'14. 4. 4	'14. 4. 11	전주비
한국 국고채(3년)	2.86	2.89	2.86	△0.03
미국 국채(10년)	3.03	2.72	2.63	△0.09

3 주식시장

구 분	'13년말	'14. 4. 4	'14. 4. 11	전주비
한국 KOSPI	2,011.34	1,988.09	1,997.44	9.35
미국 DJIA	16,576.66	16,412.71	16,026.75	△385.96

4 해운시장

구 분	'13년말	'14. 4. 4	'14. 4. 11	전주비
BDI 지수*	2,247	1,205	1,002	△203
HRCI 지수**	497.5	504.1	516.8	12.7

\*Baltic Dry Index: 벌크선 운임지수

\*\*Howe Robinson Container Index: 컨테이너선 용선지수

5 유가

(US\$/배럴)

유 종	'13년말	'14. 4. 4	'14. 4. 11	전주비
WTI유 현물	98.99	101.10	103.65	2.55
Brent유 현물	108.34	106.64	107.40	0.76
두바이유 현물	103.96	103.04	104.13	1.09